

2025 서울모빌리티쇼

# 車 전시 넘어 미래 모빌리티 제시... 이동혁신 시대 연다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기업 참가  
미래 비전·혁신 기술 대거 공개  
HD현대, 굴착기 신모델 2종 선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참석자들이 각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단순한 자동차 전시를 넘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를 엿볼 수 있는 장이 열렸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다양한 차량들을 선보이면서 각 브랜드의 미래 비전과 혁신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수소비전과 전동화라는 두 가지 대주제 아래 수소차·전기차 생태계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날 최초로 공개한 디 올

뉴 넥쏘와 더 뉴 아이오닉 6를 포함해 총 10종, 18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수입차 브랜드 BMW코리아는 고성능 순수전기 모델 BMW 뉴 i4 M50 x Drive 그란 쿠페와 BMW 뉴 iX M70

xDrive, 더 뉴 미니 쿠퍼 컨버터블과 더 뉴 미니 JCW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벤츠코리아는 고성능 2-도어 쿠페 '메르세데스-AMG GT'의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또 최고급 차량 개인 맞춤 제작 프로그램 '마누팩투어(MANUFAKTUR)'를 소개했다. 이는 고품질 인테리어 소재를 고객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해 럭셔리

한 나만의 차를 완성시킬 수 있다.

BYD코리아는 BYD 승용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인 '썰'을 공개했다. BYD 전기차 라인업 중 최초로 셀투바디(Cell-to-Body: CTB) 기술이 적용돼 e-플랫폼 3.0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HD현대 굴착기 신모델 두 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차세대 신모델은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 HD현대건설기계의 40톤급 'HYUNDAI' 굴착기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DEVELOON' 24톤급 굴착기 2종이다.

HD현대는 이번 신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톱5' 도약을 향한 질주를 본격화해 오는 2030년까지 누적 수출 45만 대·누적 매출 70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디 올 뉴 넥쏘' 공개... 5분 충전·700km 주행

현대차 수소차 등 친환경 라인업 선보  
전기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 전시



현대차 디 올 뉴 넥쏘.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3일 신형 수소전기차(FCEV) '디 올 뉴 넥쏘(The all-new NEXO)'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디 올 뉴 넥쏘'는 5분 충전에 700km 주행이 가능하며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인 '제로백'을 7.8초로 끌어올렸다.

현대차는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발표행사에서 '디 올 뉴 넥쏘'와 함께 전기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를 공개하고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는 물론, 고성능 N 전기차로 이어지는 친환경 라인업을 선보였다.

디 올 뉴 넥쏘는 지난 2018년 3월

출시 이후 7년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로 수소비전의 실체를 입증하는 친환경 수소전기차 모델이다. 현대차는 작년 10월 선보인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을 기반으로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아트 오브 스틸'을 반영해 소재의 물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새로운 접근법을 디 올 뉴 넥쏘를 통해

구체화했다.

동력 성능 측면에서도 발전했다. 현대차는 디 올 뉴 넥쏘에 2개의 인버터를 장착한 2-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을 적용해 효율을 90%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기반으로 최고 모터 출력 150kW를 달성했다.

디 올 뉴 넥쏘는 이같은 폭넓은 성능 향상을 기반으로 0km/h부터 100km/h까지 이른바 '제로백' 가속시간이 7.8초의 가속 성능을 달성했다. 단 5분 내외의 짧은 충전 시간으로 7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현대차의 DNA를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승용 기자

## LG전자-기아, '슈필라움' 콘셉트카 선보

AI 기반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제안

LG전자가 기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LG전자는 3일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기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맞춤형 AI 가전을 적용한 '슈필라움' 콘셉트카를 공개했다. LG전자는 자사의 'AI 공간 솔루션' 기술과 기아의 목적기반차량(PBV) 기술을 결합해 차량을 개인 맞춤형 생활·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의 첫 결과물로 기아의 전기 PBV 모델 'PV5'를 기반으로 한 '슈필라움 스튜디오'와 '슈필라움 글로벌우캐빈'이 공개됐다. 슈필라움 스튜디오는 1인 사업가를 위한 차량으로, 스타일러, 스마트미러, 커

피머신 등 AI 가전을 탑재해 업무와 스타일링을 지원한다. 슈필라움 글로벌우캐빈은 캠핑·피크닉용 차량으로, 냉장고, 와인셀러, 광파오븐을 갖춰 야외 활동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LG전자의 생성형 AI 허브 '썬 큐 언'이 적용돼 사용자는 음성 대화로 차량 내 가전을 제어할 수 있다. 가령, 목적지 도착 시간에 맞춰 스타일러를 작동시키거나, 피크닉 메뉴를 추천받고 광파오븐을 자동 설정하는 등 사용자의 일정과 연동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류재철 LG전자 HS사업본부장 사장은 "이번 협력은 AI 기반 공간 솔루션이 집을 넘어 모빌리티, 나아가 고객이 머무는 모든 공간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 한화에어로, 인도 3700억 수출 계약

인도육군에 K9 자주포 공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인도에 K9 자주포의 추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3700억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L&T(Larsen & Toubro)와 함께 인도 육군에 자주포를 공급한다.

이번 수출계약을 계기로 K9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넓히게 됐다. 특히 현재 인도와 협상 중인 대공체계사업의 수출 가능성도 열렸다. 인도는 현재 육·해·공 통합작전능력 향상, 인프라 현대화 등을 포함한 군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인도 뉴델리 주(駐)인도 한국대사관에서 이성호 주인도 한국대사, 손재일 대표이사,

아룬 람찬다니(Arun Ramchandani) L&T 수석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추가 계약은 K9 자주포가 인도군의 까다로운 작전 요구 조건을 충족하며 신뢰성을 입증한 결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차 계약 기간 동안 보여준 안정적인 사업 수행 능력이 인도 방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7년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20년 성공적으로 납품을 완료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과 안정적인 납품 실적으로 유럽을 넘어 인도 등 아시아 방산시장에서 각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LG이노텍-카이스트, 미래 신사업 맞손

반도체 분야 등 기술개발 MOU

LG이노텍이 카이스트와 협력해 미래 신사업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LG이노텍은 카이스트와 광학,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분야에서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향후 3년간 ▲차세대 이미징 소자 ▲기판 미세 결합 검출 ▲자율주행 센서 ▲로봇 부품 제어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KAIST 학생을 산학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채용 연계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LG이노텍의 글로벌 사업 경험과 KAIST의 연구 역량이 결합해 미래 핵심 기술을 개



4월 2일 카이스트 대전 본원에서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오른쪽)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이노텍

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는 "이번 협력은 LG이노텍이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KAIST와 함께 차별화된 미래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 삼성전자 갤럭시 탭 신제품 출시

'S10 FE·S10 FE+' 2종

삼성전자가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 S10 FE'와 '갤럭시 탭 S10 FE+'를 3일 국내 출시했다. 전작보다 더 얇아지고, AI 기반 인텔리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해 생산성과 학습 도구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탭 S10 FE가 10.9인치, 갤럭시 탭 S10 FE+는 13.1인치다. 두께는 전작보다 0.5mm 줄어든 6.0mm로 휴대성을 높였다.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도 갖춰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생산성을 높이는 서드파티 앱 '클럽 스투

출시 가격은 갤럭시 탭 S10 FE가 69만8500원에서 99만7700원, 갤럭시 탭 S10 FE+는 86만9000원 116만8200원으로 책정됐다. /이혜민 기자 hyem@